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보충법적 교체인가*

최 형 용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것이면서 음운 규칙으로는 이형태 사이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면서도 이를 규칙적 교체로 보는 경우도 있고 불규칙적 교체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보충법적 교체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선 음운 규칙은 음운 교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형태소 전체를 문제 삼는 형태소 교체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은 철저하게 형태소가 교체하는 데 있어서의 규칙성을 따져야 하는데 이때 규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교체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소의 교체만으로 규칙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동일한 교체 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예외 없이 예측 가능하므로 규칙적 교체라고 할 수 있다. 음운 규칙은 규칙적 교체를 보장하지만 규칙적 교체가 반드시 음운 규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음운론적 조건은 규칙적 교체에서도 발견되고 불규칙적 교체에서도 발견되므로 교체의 규칙성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가 규칙적인 교체라면 이를 보충법적 교체로 볼 수 없다. 보충법적 교체란 형태소의 교체가 불규칙적인 것 가운데서도 극단에 속하는 것에만 한정되므로 규칙적 교체라는 말은 곧 해당 교체가 보충법적 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더군다나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는 패러다임을 양분하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어느 것을 ‘보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통시적인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불규칙적 교체, 그 가운데서도 보충법적 교체에서 출발하여 규칙적 교체로 발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핵심 어휘: 교체, 음운론적 조건, 음운 규칙, 이형태, 규칙적 교체, 불규칙적 교체, 보충법적 교체, 규칙성, 예측 가능성

* 본 논문은 교육부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의 게재료 지원을 받았음.

1. 머리말

최근 형태소의 교체가 가지는 규칙성의 여부나 교체의 조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이 노정(露呈)되어 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이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형태 사이의 관계가 도출에 의한 것인가를 포함하여 특히 교체에 대한 분류 가운데 서로 모종의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에 초점을 두어 이를 보충법적 교체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보충법적 교체 여부를 따지기 위해 몇 가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이란 무엇인가?

나.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은 음운론적 조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다.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은 보충법적 교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1가)는 형태소의 교체를 그 방식에 따라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로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가 그에 따라 규칙적 교체인지 불규칙적 교체인지를 따져 보기 위한 것이다.

(1나)는 규칙적 교체가 음운론적 조건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음운론적 조건이 규칙적 교체를 담보하는지를 살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의 성격을 명백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다)는 보충법적 교체가 규칙 혹은 불규칙 교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탐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즉 불규칙적 교체가 보충법적 교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통해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가 보충법적 교체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충법적 교체는 특히 교체의 규칙성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가, 나)에 대한 논의는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가 보충법적 교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 기존 논의의 검토

이제 (1)에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형태소 교체 그 가운데서도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에 대한 교체를 중심에 두고 이와 관련된 최근 논의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¹⁾

먼저 김경아(1999)에서는 형태소의 교체를 형태소 경계와 형태소 내부로 크게 나누고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교체를 보충법적인 교체,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교체,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²⁾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에 넣었는데 대신 두 이형태 사이의 음운론적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둘 다 개별적인 기저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송철의(2000)에서는 교체를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 형태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 형태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비음운론적 교체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때 음운론적 교체란 음운 규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이 가운데 형태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비음운론적 교체로 다루었다. 그동안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흔히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인 것으로 설명하여 왔지만 이 교체가 곡용이라는 범주에 한정된 것이라면 교체의 조건에 형태론적인 정보가 내포(혹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교체의 내용이 음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교체의 내용은 비음운론적이라고 본 것이다. 송철의(2000: 291)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보충법적 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때 보충법적 교체란 기본형(혹은 대표 이형태)과는 형태상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어떤 이형태로 교체되는 경우이므로 ‘이/가’가 이에 대한 예가 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혁화(2002)에서는 먼저 음운 과정으로서의 ‘교체’와 이형태 ‘교체’에서의 ‘교체’를 구분하고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음운 과정으로서의 교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³⁾ 이는 원래 교체가 음운이 아니라 형태를 대상으로 출발한 것임을

1) 따라서 교체의 개념 및 범위, 종류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업적들에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에 관련된 것으로만 논의를 한정하기로 한다. 보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기존 논의의 검토에서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라고 할 때의 ‘주격 조사’는 모두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고에서 ‘주격 조사’ 앞에 ‘현대’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가’의 통시적인 특수성 때문이지만 어디까지나 주된 관심사는 이들 각각이 자음 뒤, 모음 뒤에 나타나는 현대에 한정된다.

염두에 둘 때 음운 과정으로서의 ‘교체’는 지양되어야 하는 용어라고 보았다.⁴⁾ 그리고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규칙적 교체로 보는 다음의 두 가지 견해를 들고 그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2) 가. 같은 환경에서는 다 같은 방식의 교체가 일어나면 규칙적인 교체이며, 환경은 같은데도 다른 방식의 교체가 일어나면 불규칙적 교체이다(이익섭·임홍빈 1983: 114).

나. ‘이~가’의 교체는 교체 환경이 음운론적 교체이고, 꼭 그렇게 교체해야 할 필연성은 없기에 비자동적 교체이며, 동일 환경에서 예외가 없기에 규칙적 교체이다(민현식 1996: 259).

우선 (2가)의 견해에서는 그 예로 주격 조사 ‘이/가’를 들고 있으므로 (2가, 나)의 견해는 곧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규칙적 교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규칙적 교체를 ‘예외 없음’이라고 보거나 호켓(1958)처럼 ‘더 빈번함’으로 보게 되면 ‘묻(埋)-’, ‘묻(問)-’도 각각 예외 없이 그 환경의 제시가 가능하며 ‘르’를 가지는 어간의 경우 더 많은 수를 가지는 ‘다르다’류를 규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이혁화(2002)에서는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일반적인 교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체 방식이 둘 이상일 경우나 하나일 경우 일반적인 교체 방식은 규칙적 교체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교체 방식은 불규칙적 교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격 조사의 교체는

3) 교체를 이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추상적인 형태소에서 구체적인 이형태로의 과정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형태 사이에 적용되는 과정으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앞의 견해는 대체로 설명을 위한 생성 이론에 기반한 것이며 뒤의 견해는 대체로 기술을 위한 구조주의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혁화(2002)에서는 주격 조사를 ‘{주격 조사}’처럼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형태의 교체를 추상적인 형태소 개념에서 구체적인 이형태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음운론의 논의에서는 교체를 기저형에서 표면형으로의 도출로 설명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교체를 단어 형성, 문장 형성, 표면 음성 형식의 도출 등 그 초점에 따라 각각 편한 대로 따로따로 기술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고찰은 이홍식(2000)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4) 이에 따라 음운론 분야를 중심으로 형태소의 ‘교체’를 ‘교체’로, 음운 과정으로서의 ‘교체’를 ‘대치’ 정도로 구분하자는 견해가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태소의 ‘교체’를 ‘교체’로 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교체 방식이 하나이면서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는 교체 방식이라는 점에서 불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박재연(2010)은 송철의(2000)과 일맥상통하게 보충법의 본질을 형식적 상이성에 두고 교체형들이 음성적 유사성을 전혀 가지지 않는 것이 보충법적 교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이형태 출현의 규칙성과 이형태들 사이의 형식의 유사성은 엄밀히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보충법적 교체로 간주하였다.

이진호(2014)는 교체의 규칙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가 단순한 분류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체의 규칙성에 대한 본질 파악이 어려웠고 교체의 규칙성을 유무의 이분법적 문제로만 바라보아서 정도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교체 양상의 일반화 여부와 음운 규칙에 의한 설명 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는 불규칙으로, 교체 양상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규칙으로 분류되어 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하위 기준을 설정하여 규칙성의 정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첫째 기준은 교체에 의한 이형태 출현을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둘째 기준은 교체를 보이는 형태소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준은 교체의 환경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교체의 조건은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불규칙 용언과 마찬가지로 규칙성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김양진(2017)에서는 보충법적 이형태들(약보충법적 이형태이든 강보충법적 이형태이든)이 모두 역사적인 변화가 공식적으로 누적되는 과정이나 둘 이상의 방언 혹은 언어 간의 합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는 역사적 전개에 따라 문법상의 체계적 빈칸을 채우기 위해 문법화의 과정을 거쳐 강보충법적 이형태를 이루는 경우로 간주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이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의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다. 이익섭·임홍빈(1983), 민현식(1996)은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규칙적 교체로 간주하였으나 이혁화(2002)는 이를 불규칙적 교체로 간주하였다. 이진호(2014)에서는 규칙성을 정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나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가 불규칙 용언과 마찬가지로 규칙성의 정도가 낮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역시 이를 불규칙적 교체로 간주하는 견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가 보충법적 교체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 김경아

(1999)에서는 교체를 나눌 때 보충법적 교체와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를 대등하게 놓고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로 보았으므로 이를 보충법적 교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송철의(2000), 김양진(2017)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보충법적 교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셋째는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로 나누고 이를 다시 보충법적 교체 여부와 연결하려는 논의이다. 박재연(2010)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의 실현이 규칙적이기는 하지만 형태적 상이성이라는 보충법의 판단 기준을 엄두에 둘 때 보충법적 교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체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를 규칙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추론케 한다.

결국 이상의 논의는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규칙적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고 불규칙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보충법적 교체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체의 규칙성과 보충법적 교체가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박재연(2010) 정도가 교체의 규칙성을 보충법적 교체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엄밀히 보아서는 교체의 규칙성은 보충법적 교체와 별개의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체의 규칙성이 보충법적 교체와 가지는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교체의 규칙성이 보충법적 교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보충법적 교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형태소의 교체와 규칙성의 문제에 대해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교체의 조건과 관련하여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곧 (1가, 나)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3. ‘형태소의 교체’와 ‘규칙성’

3.1. ‘음운 교체’와 ‘형태소 교체’

형태소의 교체(alternation)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음성(phonemic shape)을 달리하는 것이다.⁵⁾ 현대 한국어의 주격 조사는 선행 요소가

5) 이진호(2014: 3)에서는 ‘음상’ 대신 ‘형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형태소가 교체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이/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가/로 실현된다. 앞선 논의들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조건이 음운론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규칙적 교체로 보지 않는 논의가 적지 않은 것은 /이/와 /가/ 사이의 교체가 음운 규칙에 의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이/와 /가/의 교체가 음운 규칙에 의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도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과연 음운 규칙에 의해 교체가 설명된다고 하는 것이 규칙적 교체의 필요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음운 규칙은 음운에 적용되고 형태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⁶⁾ 따라서 음운 규칙이 적용된 결과로서의 교체는 음운 교체에 해당하고 형태소 교체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⁷⁾ 이를 가장 잘 포착한 것은 송철의(2000: 289-290)의 다음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 그대로 가져오기로 한다.

- (3) 형태소 {먹-}은 /먹-/과 /명-/으로 교체된다. 이들의 교체는 교체의 조건도 음운론적인 것이고 교체의 내용도 음운론적인 것이다(여기서 교체의 내용이 음운론적이라는 것은 교체의 내용이 공식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만을 생각한다면 형태소의 교체가 형태론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 음운론의 소관 사항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체와

다는 것은 곧 이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실제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는 것은 추상적인 형태소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형태’이므로 이러한 표현이 ‘음상’과 크게 다르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 6) 이는 음운이 그대로 형태소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여기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음운’과 ‘형태소’의 층위 구별이다.
- 7)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혁화(2002)에서 두 가지의 ‘교체’가 혼동된다고 한 것은 그리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배주채(2017)에서는 형태소 교체 이외에 어휘소 교체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 감안하면 ‘음운 교체’, ‘형태소 교체’, ‘어휘소 교체’라고 할 때 교체는 그 대상이 ‘음운’, ‘형태소’, ‘어휘소’ 등으로 구별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만약 ‘교체’가 ‘음운 교체’와 ‘형태소 교체’ 모두에서 쓰여 문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탈락’이라는 용어도 ‘음운 탈락’도 있고 ‘형태소 탈락’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운 교체’에서의 ‘교체’는 ‘이음 교체’가 아닌데 ‘형태소 교체’에서의 ‘교체’는 ‘이형태 교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교체되는 범위가 차이가 난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교체’라는 말은 ‘선수 교체’에서와 같이 A와 전혀 다른 B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음운 교체’는 합당하지만 A의 다른 모습일 뿐인 A'을 지시하는 ‘형태소 교체’에서의 ‘교체’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배주채(2017)에서 언급한 ‘어휘소 교체’도 그 현상은 ‘형태소 교체’와 같은 개념으로서 한 어휘소의 다른 모습을 지칭하는 데 쓰고 있다.

관련하여 형태론과 음운론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다르다. 형태론은 /먹-/이라는 형태 전체가 /멍-/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형태론은 형태론의 단위인 형태소(혹은 이형태)가 어떻게 바뀌느냐(형태소의 교체)에 관심을 갖는 데 반하여 음운론은 음운론의 단위인 음운이 어떻게 바뀌느냐(음운의 교체)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형태론은 형태소의 교체가 음운 교체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 형태소의 교체를 초래한 음운 교체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즉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뀐 것이 동화인지 이화인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형태소의 교체 자체는 음운론의 소관 사항이 될 수 없다.

(밑줄 필자)

즉 (3)은 음운론에서 형태소의 교체를 언급한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음운’ 교체이고 그것이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반면 형태론에서 형태소의 교체를 언급한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형태소’ 교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형태소의 교체에서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를 따진다고 할 때 음운 차원이 아니라 형태소 교체 차원에서 해당 교체가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음운 규칙에 의해 형태소의 교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를 규칙적 교체로 볼 수 있는 충분조건은 되지만 필요조건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형태소 차원에서의 규칙성은 형태소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하므로 음운 규칙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형태소 교체도 규칙적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아무런 모순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3.2. 형태소 교체에 있어서의 규칙성

이진호(2014: 6)에서는 그동안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⁸⁾

(4) 가. 교체 양상의 일반화 여부 : 형태소들의 교체 양상을 일반화할 수 있으면 규

8) 이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진호(2014: 6-8)을 참고할 것. 또한 이진호(2014: 9)에서는 이른바 ‘ㄷ’ 불규칙 용언이 (4)의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도 모두 불규칙으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칙적이다. 교체 양상을 일반화할 수 없고 그런 교체를 보이는 형태소 목록을 일일이 나열해야 한다면 불규칙적이다.

나. 교체 방식의 빈도 : 같은 조건에서 가장 많은 형태소들이 보이는 교체 방식이 규칙적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불규칙적이다.

다. 교체 양상의 동일성 여부 :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교체 양상을 보이면 규칙적이다. 같은 조건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교체 양상을 보이면 불규칙적이다.

라. 형태론적 조건의 유무 : 형태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교체는 불규칙적이다.

마. 음운 규칙에 의한 설명 가능성 :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체는 규칙적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규칙적이다.

바. 일반적 교체 방식의 준수 유무 : 같은 조건에서 둘 이상의 교체 양상을 보일 때 일반적 교체 방식을 따르는 것이 규칙적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이/가’의 교체는 (4가, 마)의 기준을 적용하면 불규칙적 교체에 해당하고 (4다)의 기준을 적용하면 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4가)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불규칙적이라고 본 것은 이혁화(2002)의 언급처럼 주격 조사의 교체는 유일하게 주격 조사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 이것이 형태소 목록을 일일이 나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에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5) 가. 책이

가. 바다가

나. 이제 언제 떠나느냐가 문제다.

나. “갈걸”이 아니라 “갈걸요”라고 해야지.

다. 꺾이

다. 뽕가

(5)는 주격 조사 ‘이/가’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시해 본 것이다. (5가, 가)은 주격 조사 ‘이/가’가 형태소(혹은 단어)와 결합한 것이고 (5나, 나)은 ‘언제 떠나느냐’, ‘갈걸’과 같이 문장과 결합한 경우이며⁹⁾ (5다, 다)은 한국어에 존재하지

9) 송철의(2000: 292)에서는 주격 조사의 교체가 곡용에 한정되므로 형태론적 조건 역시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음운론적 조건과 형태론적 조건이 함께 작용하는 형태·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라고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진호(2015: 173)에서는 주격 조사의 교

않는 형태소(혹은 단어)를 상징해 본 경우이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가/의 교체는 정확히 예측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가’의 교체를 위해서는 형태소 목록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형태소 목록을 일일이 나열해야 한다면 (5다, 다)에서 ‘겪’, ‘뽀’는 알 수 없는 형태소(혹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가’의 교체를 결정지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격 조사의 교체 방식이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고 주격 조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교체의 불규칙성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형태소의 교체 방식과 비슷한 교체 방식은 규칙적인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규칙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형태소

체가 곡용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은 교체를 보이는 주격 조사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되었을 뿐 교체 조건과는 무관하다고 보았는데 본고의 견해도 이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곡용에 한정되는 모든 조사, 활용에 한정되는 모든 어미는 형태·음운론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이 깊지가 않다.”, “대개가 그 말을 믿지 않았다.”와 같은 문장을 보면 ‘깊지’나 ‘대개’와 같이 어미 결합형이나 부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가’는 주격 조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역시 그 교체 양상은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와 양상이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주격 조사’라고 한 ‘이/가’의 교체는 보조사적 용법을 보이는 ‘이/가’뿐만이 아니라 학교 문법에서 보격 조사로 일컬어지는 ‘책이 아니다’, ‘박사가 되다’의 ‘이/가’도 포괄한다.

- 10) 이때 중요한 것은 형태소의 교체가 음운론적 단어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홍식(2000), 이진호(2015)에서는 형태소 교체를 인접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음운론적 단어를 떠나는 순간 해당 형태소는 형태소의 자격을 잃는다고 판단된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눈다고 할 때 자립 형태소는 문장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의존 형태소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태소는 문장 구성 요소가 아니라 단어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 문장에서 홀로 설 수 없다. 형태소는 문장 구성 요소가 아니라 단어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립 형태소가 문장에서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은 곧 해당 형태소가 그 자체로 문장 구성 요소 가운데 자립적인 단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야 의존 명사도 자립 형태소라는 기술이 성립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한다면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통사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라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만약 문장 구성 요소의 다른 요소가 음운론적 단어를 넘어 다른 요소를 참조하여 그 실현 양상을 결정지을 수 있다면 그 요소는 단어 구성 요소일 수 없고 문장 구성 요소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외형은 비록 형태소와 같더라도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어제 비가 왔다.”라는 문장에서 ‘-왔-’을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왔다’라는 음운론적 단어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고 이를 ‘어제’와 호응하는 요소로 본다면 이때는 ‘-왔-’을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단어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형태소의 교체 조건에 대해 고영근(2005), 박재연(2010)과 동일한 관점에서 있다.

의 교체가 규칙적인가를 따질 때 다른 형태소의 교체 방식을 참고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 가지는 교체의 유형이 여러 형태소에서 공통될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혁화(200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형태소의 교체 방식과 비슷한 교체 방식은 규칙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하-’ 다음에 오는 어미 교체의 규칙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와 같은 어간을 참고하는 것이나 어간 ‘듣-’의 교체의 규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묻[埋]-’과 같은 다른 어간을 참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 다음에 오는 어미 ‘-여’나 ‘묻[埋]-’과는 다른 교체를 보이는 ‘듣-’이 불규칙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교체의 유형이 다른 형태소에서는 발견되지 않을 경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혁화(2002)에서는 이를 불규칙으로 간주한 바 있다. 바로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때는 해당 형태소 자체의 교체 방식에서 규칙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형태소 교체는 음운이 아니라 형태소 자체의 교체가 관심 대상이므로 그와 비슷한 교체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해당 교체의 불규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체를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으로 나눌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교체가 불규칙적이라는 것은 어떤 교체는 규칙적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체의 규칙성을 판단할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눈 것처럼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슷한 교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형태소가 규칙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즉 ‘묻[埋]-’이 규칙적이라고 할 때 ‘듣-’이 불규칙적이 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슷한 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교체의 규칙성을 따져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가령 주격 조사의 교체가 불규칙하다는 것은 곧 주격 조사의 교체 가운데는 규칙적인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격 조사의 교체 자체를 불규칙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주격 조사의 교체 내에서 규칙적인 교체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이에 따르면 만약 /듣~/들/의 교체가 이에만 한정된다면 이것도 주격 조사의 교체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한다. 그러나 /듣~/들/이 불규칙이 되는 것은 이러한 교체를 보이지 않는 ‘묻[埋]-’과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격 조사도 불규칙이 존재하려면 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 /이/나 /가/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올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격 조사는 동일한 환경에서 이들 두 이형태 외에 다른 이형태가 오는 일이 없다. 이것은 곧 주격 조사만을 대상으로 교체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따질 때는 불규칙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교체의 규칙성을 비슷한 교체 유형이 없을 때 단일한 형태소의 교체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도 그리 어색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6) 가. /-ɪd/~/-/t/~/-/d/

나. /-ɪz/~/-/s/~/-/z/

(6)의 경우는 영어에서의 형태소 교체인데 (6가)는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의 이형태이고 (6나)의 경우는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의 이형태이다. 이들 교체는 모두 규칙적 교체에 해당하는데 이때 그 판단은 (6가)가 (6나)를 참조한다거나 (6나)가 (6가)를 직접적으로 참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운론적 환경보다 (6가)는 활용, (6나)는 곡용이라는 문법 범주에서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서 불규칙은 (6가)에서는 ‘took’와 같은 것들이, (6나)에서는 ‘oxen’과 같은 것들이 해당되어 그 양상이 매우 다르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took’, ‘oxen’을 불규칙으로 판단할 때의 근거는 그 자체의 다른 규칙적인 이형태의 존재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규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규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이때의 ‘예측 가능성’은 음운 규칙을 포함하는 것이면서 형태소의 교체를 포함한 모든 규칙성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규칙에서의 예외란 따라서 예측되지 않는 것을 지시하는데 주격 조사의 이형태는 예측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예외가 없으므로 그 규칙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진호(2014)에서는 규칙성이 정도성을 가지며 그동안 정도성을 무시하고 이분법적으로 이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규칙적 교체’, ‘불규칙적 교체’라고 할 때 ‘규칙적’, ‘불규칙적’이라는, 정도성이 내재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사실은 이를 ‘규칙 교체’와 ‘불규칙 교체’처럼 사용해 왔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음운 규칙으로 이형태 사이의 교체가 설명되는 것을 규칙성이 매우 높은 ‘규칙 교체’라고 할 수는 있다. 이에 따르면 음운 규칙으로 교체가 설명되지 않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규칙적 교체’라고 보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진호(2014)에서는 규칙성의 정도를 ‘Ⅰ, Ⅱ, Ⅲ, Ⅳ, Ⅴ’의 다섯 개로 나누고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불규칙 용언과 함께 Ⅳ 유형에 포함시켰는데 본고에서는 ‘규칙 교체 - 규칙적 교체

- 불규칙적 교체 - 불규칙 교체’처럼 규칙성을 정도화한다고 할 때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적어도 ‘규칙적 교체’에 넣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¹¹⁾

3.3. 형태소 교체의 음운론적 조건과 규칙성

그렇다면 형태소가 교체할 때 그 조건이 음운론적이라는 것과 규칙성의 관계는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가 발생하는 환경을 자음 뒤, 모음 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먹-}이 /명-/으로 바뀌는 것과 동일하게 그 조건은 음운론적이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가 음운 규칙에 의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이/~ /가/이고 음운 규칙에 의해 설명이 되는 것이 /먹/~ /명/이 될 뿐이다.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와 마찬가지로 목적격 조사 ‘을/를’, 보조사 ‘은/는’, 접속 조사 ‘과/와’의 교체도 모두 그 교체 조건은 자음 뒤, 모음 뒤에 해당하므로 음운론적인 것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규칙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예측 가능성으로 본다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가 규칙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격 조사 ‘을/를’, 보조사 ‘은/는’, 접속 조사 ‘과/와’의 교체도 모두 규칙적인 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형태의 교체가 언제나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음운론적 조건이 언제나 규칙적 교체로 결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건이 음운론적이라는 것은 형태소 교체가 일어날 때 그 환경이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음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규칙적 교체인 /문-/~/물-/의 이형태 교체도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느냐에 따른 것이므로 그 조건은 음운론적인 것이다.

따라서 음운 규칙에 의해 설명되느냐가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를 가르지 못하는 것처럼 음운론적 조건도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를 가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운 규칙에 의해 설명되는 것은 모두 규칙적 교체이지만

11) 사실 규칙성도 정도성을 지니지만 규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도 정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단어 형성을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유추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최근 형태론의 논의는 규칙을 주장하는 쪽에서 바라보는 규칙과 유추를 주장하는 쪽에서 바라보는 규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형용 외(2015: 21-25)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추도 그 출발은 소장문법학자들이 법칙에 대한 예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는 유추가 규칙과 구별되는 것이었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규칙과 유추를 규칙성의 정도로 환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규칙과 유추가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규칙적 교체가 모두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선행 요소의 유정성에 따라 ‘에/에게’의 교체를 상정한다면 그 조건은 음운론적이지 않으면서도 규칙적 교체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이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가 보충법적 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4.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과 보충법적 교체

4.1. 보충법과 보충법적 교체

고영근(1999)의 제4장에서는 한국어의 보충법과 불완전 계열에 대해 자세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때 보충법(suppletion)이란 형태론적 불규칙성 가운데에서 가장 복잡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주어진 틀(계열)¹³⁾ 안에서 같은 형태소임을 표시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어원적으로 관련이 없는 형태의 문법적 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 결과 보충법은 규칙적 어기나 접사와는 음운론적으로 전혀 모습이 다른 형태로 패러다임상의 빈칸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보충법과 보충법적 교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7) 가. 나 - 우리

나. 하나 - 첫째

(7)의 ‘우리’와 ‘첫째’는 보충법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예에 해당한다. (7가, 나)를 보충법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한다.

12) 카탐바(2003)를 참조하여 유정성(animateness)을 문법 범주로 보아 이를 문법적 조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교체 조건에 대해서는 고영근(2005)을 따라 이를 어휘 내적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고영근(2005)의 2장을 참고할 것.

13) 이때의 ‘틀(계열)’은 ‘paradigm’의 번역어이다. 이는 형태소 분석 기준으로 언급되는 ‘계열 관계’의 ‘계열’을 고려한 것인데 ‘계열 관계’는 ‘통합 관계’의 짝이라는 점에서 대치 관계를 주로 지시하지만 보충법과 관련되는 ‘paradigm’은 후술하는 (8)과 같이 ‘계열 관계’에 따른 ‘통합 관계’를 모두 지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보충법과 관련되는 ‘paradigm’을 그냥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관례를 따라 이를 ‘패러다임’이라고 부르코자 한다.

(8) 가.

	-희
나	*나희
저	저희
너	너희

나.

	-째
하나	*하나째
둘	둘째
셋	셋째

(8가, 나)는 (7)의 예들을 패러다임으로 변환해 본 것이다. 즉 패러다임으로는 “나희”가 예측되는데 이를 전혀 형태가 다른 ‘우리’로, “*하나째”가¹⁴⁾ 예측되는데 이를 전혀 형태가 다른 ‘첫째’로 ‘보충’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해 ‘우리’의 관계는 박재연(2010)에서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보충법적 교체는 아니다. 보충법적 교체란 정확하게는 보충법적 형태소 교체를 의미하는데 ‘나’와 ‘우리’는 이형태 관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형태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의미’와 ‘상보적 분포’를 정의적 속성으로 갖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의미’이다. ‘상보적 분포’는 ‘동일한 의미’를 전제로 했을 때만 따질 수 있는 종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보적 분포’를 따질 필요가 없이 서로 다른 형태소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나’와 ‘우리’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이것만으로도 이형태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이에 대해 ‘하나’와 ‘첫째’ 사이에서는 보충법적 교체를 찾을 수 있다. ‘하나’가 ‘첫째’로 보충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첫’으로 보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하나’와 ‘첫’은 그 의미가 동일하면서 서로 상보적 분포를 갖는다. 따라서 이 둘 사이는 보충법적 이형태 교체에 해당한다. 즉 보충법은 보충법적 이형태 교체를 포함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에 해당한다.

14) ‘하나째’는 ‘한 개째’의 의미일 때는 가능하다. 물론 보충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양 개념이 아니라 순서 개념일 때이다.

15) 보다 엄밀하게 관찰하면 ‘우리’는 패러다임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형태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념상으로는 “나희”에 대응해 ‘나’에는 없는 ‘복수’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go’에 대해 ‘went’와 가지는 관계와 동일하다. ‘went’에도 ‘과거’의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이를 패러다임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형태소로 보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4.2. 규칙적 교체와 보충법적 교체

고영근(1999)에서 보충법을 정의한 것을 보면 이때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속성이 눈에 띈다. 하나는 보충법을 따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충법이 되기 위해서는 불규칙성이 기본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속성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패러다임은 어떤 빈칸을 차지할 수 있는 형태를 예측하게 하는데 이때 예측되지 않는 요소가 그 빈칸을 차지하는 것이 보충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패러다임에서 빈칸을 남기기보다 그 빈칸을 전혀 다른 형태로라도 ‘보충’하여 채우는 것이 보충법의 본질이다.¹⁶⁾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9) 가.

	이
책	책이
바다	*바다이
공	공이
차	*차이
⋮	⋮

나.

	이/가
책	책이
바다	바다가
공	공이
차	차가
⋮	⋮

(9)는 주격 조사의 결합을 패러다임으로 표시해 본 것인데 (9가)는 송철의(2000)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저형을 ‘이’로 설정하고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들을 보충법적 교체로 간주하기 위한 것이다.¹⁷⁾ 이에 대해 (9나)는 김경아(1999)에 따라 기저형을 ‘이/가’로 설정하였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예측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규칙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패러다임에서 빈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16) 이는 곧 단어 형성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가 하는 질문과도 관련된다. 단어 형성도 패러다임을 형성한다고 보는 관점은 단어 형성을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대해 단어 형성은 일종의 과정이며 패러다임과는 달리 빈칸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이와 반대의 견해를 대변한다. 뒤의 견해를 본고의 논의와 관련시키면 단어 형성에서는 보충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7) 그러나 기저형을 {이}로 보는 것은, 현대 한국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약정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기저형이 {이}이고 이것이 심리적 실재성을 가진다면 언어 습득에서도 {이}가 먼저 습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조사 습득에 대한 연구인 배소영(1997)에서는 2세 아동의 경우 정반응률과 정반응시간 모두에서 ‘이’보다 ‘가’에 대한 반응률이 더 낮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것은 곧 (9나)와 같은 경우는 보충법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충법에 대한 (9가)의 분석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가 기저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도 고영근(199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충법이 불규칙성, 그 가운데서도 극단에 속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가령 ‘go’에 대한 보충법 ‘went’는 규칙적 산출형 ‘goed’로 실현되는 일이 있고 ‘ox’에 대한 보충법 ‘oxen’은 규칙적 산출형 ‘oxes’로 실현되는 경우가 보고되어 있지만 ‘바다가’ 대신 ‘바다이’로 실현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고의 가정이다. 이는 보충법이 극단적인 불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흔히 규칙적인 형태가 산출되는 현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다이’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바다이’가 출현한다면 이는 반대로 ‘책가’도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⁸⁾ 이것은 습득 과정에서 나오는 오류일 수는 있어도 예측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보충법적 교체는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⁹⁾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적어도 현대 한국어를 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나 ‘첫째’, ‘went’나 ‘oxen’과 같이 ‘가’로 교체되는 것들을 그 선행 성분과 함께 어휘부에 등재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다. 즉 ‘이/가’의 교체는 연산(computation)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기억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 앞서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가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를 장황하게 따진 것도 이러한 결론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한 번 언급 하거니와 기저형을 {이}로 보고 /가/를 도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음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있어도 교체의 불규칙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가 규칙적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곧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보충법적 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재연(2010)의 논의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형

18) 보충법이 왜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보충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빈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건 보충법의 빈도가 낮아지면 해당 빈칸은 규칙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19) 이것은 불규칙적 교체도 어휘부에 그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듣-’은 어휘부에 이형태 ‘들-’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하지만 ‘묻[埋]-’은 그럴 필요가 없다.

태 출현의 규칙성과 이형태들 사이의 형식의 유사성은 엄밀히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본 것은 매우 타당한 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참고하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규칙적’이라고 하면서 형식상의 상이성에 중점을 두어 이를 ‘보충법적 교체’라고 본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규칙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보충법적 교체’를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보충법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영근(1999, 2005)에서도 한국어의 보충법을 논의하면서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넣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언급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설령 ‘이/가’의 교체가 가지는 규칙성을 이진호(2014)에서처럼 매우 낮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보충법은 불규칙을 전제하지만 불규칙이 반드시 보충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규칙이라고 하더라도 (9가)처럼 환경을 정확히 양분하여 출현하는 것을 보충법으로 간주한 논의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보충’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충법을 불규칙의 극단이라고 간주해 온 것도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불규칙의 극단에 속하는 보충법은 그 출현도 상대적으로 극히 소수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송철의(2000), 박재연(2010)에서 보충법적 교체로 판단하기 위해 제시한 형식상의 이질성은 보충법적 교체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에 대한 통시적인 사실은 이러한 교체가 처음부터 규칙적인 교체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른 시기의 주격 조사는 ‘이/ㅣ/∅’를 이형태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음 다음에 나타나는 ‘ㅣ/∅’의 자리를 ‘가’가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는 ‘ㅣ/∅’로 교체하는 것이 규칙적이었고 ‘가’는 예측되지 않는 불규칙이었으며 그 형태도 매우 이질적이었으므로 ‘가’는 그야말로 보충법적 이형태에 해당한다.²⁰⁾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 ‘가’는 그 출발은 보충법적 이형태의 지위를 가졌으므로 불규칙으로 출발하였으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규칙적인 것으로 바뀐 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대 한국어의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보충법적 교체로 보는 김양진(2017)에서의 논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된다.

20) 중세 국어, 근대 국어에 나타나는 주격 조사 ‘이’, ‘가’의 분포, 그리고 이에 대한 쟁점과 그 기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 등은 김현주(2016)에 자세하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를 대상으로 그 교체의 규칙성과 보충법적 교체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그 환경이 음운론적이고 그 교체가 음운 규칙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는 데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규칙적 교체로 보는 견해와 불규칙적 교체로 보는 견해가 존재하며 또한 보충법적 교체로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가 아울러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시작된 본고의 논의 결과를 (1)에서 제시한 다음 질문들에 답하는 식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10) 가.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이란 무엇인가?

나.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은 음운론적 조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다.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은 보충법적 교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10가)는 형태소 교체를 음운 교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은 유사한 교체 유형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만약 유사한 교체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해당 형태소의 교체만을 염두에 두고 규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때 규칙성은 이형태가 존재할 경우 그 이형태의 출현을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예측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비슷한 교체 유형을 가지지 않아 그 자체의 교체 유형에서 규칙성을 판단해야 하는 예에 해당하고 이형태 교체에서 예외를 가지지 않으므로 규칙적 교체로 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10나)는 이러한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이 음운론적 조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따지기 위한 것이었다. 음운 규칙은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을 담보하지만 음운론적 조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규칙적 교체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규칙적 교체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체의 규칙성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10다)는 이상의 논의에 따라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가 보충법적 교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교체의 규칙성과 보충법적 교체가 가지는 관련성에 주목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보충법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규칙적 교체는 보충법적 교체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보충법적 교체가 반드시 불규칙적 교체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는 규칙적 교체에 해당하므로 보충법적 교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형식의 상이성은 보충법적 교체를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기원적으로는 ‘가’가 보충법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분포를 확대한 결과가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라는 점에서 불규칙적 교체 그 가운데서도 보충법적 교체가 규칙적 교체로 바뀐 예가 바로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규칙적 교체로 본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익섭·임홍빈(1983), 민현식(1996)의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논의가 교체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그 유형을 상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교체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규정한 것과는 반대로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 주격 조사 ‘이/가’의 교체를 중심에 두고 형태소의 교체와 음운의 교체를 엄밀하게 구별하였다는 점, 이를 기반으로 교체의 규칙성이 음운 규칙과 가지는 관계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체의 규칙성이 보충법과 가지는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 등은 본고의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논지가 더욱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이/가’의 교체를 포함하여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에 대한 반응 시간을 따지는 등 심리언어학적 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 고 논 지

- 고영근(199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영근(2005),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중심으로-」, 『국어학』 46, 19-52.
 김건희(2014), 「이형태 설정의 문제」, 『어문학』 123, 1-37.
 김경아(1999), 「형태음운론적 교체와 형태음운부」, 『형태론』 1-2, 305-317.
 김양진(2017), 「한국어의 형태와 형태소」, 『국어학』 81, 227-261.
 김유범(2001),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음운론과 형태론」,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김유범(2008), 「이형태 교체의 조건과 중세국어 이형태 교체의 몇 문제」, 『국어국문학』 149, 201-222.
- 김유범(2017), 「이형태의 성격과 이형태 교체의 유형」, 『국어학』 81, 325-349.
- 김현주(2016), 「중세근대국어 주격조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 23, 7-32.
- 민현식(1996), 「중세국어의 교체 현상 기술에 대한 재검토」,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252-286.
- 박선우(2004), 「불규칙 활용의 불규칙성에 대한 검토」, 『청람어문교육』 30, 223-249.
- 박재연(2010), 「이형태 교체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 58, 129-155.
- 배소영(1997), 「한국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에 관한 연구-조사 ‘가, 이, 는, 도,를’-」, 『말-언어장애연구』 2, 27-42.
- 배주채(2009), 「‘달다, 다오’의 어휘론」, 『국어학』 56, 192-220.
- 배주채(2017), 「교체의 개념과 조건」, 『국어학』 81, 295-324.
- 블룸필드(L. Bloomfield)(1933), *Language*, Henry Holt and Company.
- 송철의(1995), 「곡용과 활용의 불규칙에 대하여」, 『진단학보』 80, 273-290.
- 송철의(2000), 「형태론과 음운론」, 『국어학』 35, 287-311.
- 이선웅·오규환(2017), 「형태소의 식별과 분류」, 『국어학』 81, 263-293.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진호(2006), 「음운 규칙의 공시성을 바라보는 시각」, 『국어학』 47, 39-63.
- 이진호(2014), 「형태소 교체의 불규칙성에 대하여」, 『국어학』 69, 3-29.
- 이진호(2015), 「형태소의 교체 조건」, 『형태론』 17-1, 169-183.
- 이혁화(2002), 「교체에 대하여」, 『형태론』 4-1, 59-80.
- 이흥식(2000), 「교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성심어문논집』 22, 247-272.
- 최형용(2013),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 박이정.
- 최형용 외(2015), 『한국어 연구와 유추』, 역락.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최형용(2017), 「단어 형성과 형태소」, 『국어학』 81, 351-391.
- 카탐바(F. Katamba)(1993), *Morphology*, The Macmillan Press.
- 하스펠마트·심즈(M. Haspelmath & A. D. Sims)(2010), *Understanding Morphology*(2nd edition), Hodder Education.
- 호켓(C. F. Hockett)(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The Macmillan Company.

Choi, Hyung-yong. 2017. Is the alternation of subjective case marker ‘*i/ka*’ in modern Korean a suppletive alternation?, *Hyengthaylon/Morphology* 19.1, 25-46. The alternation of subjective case marker ‘*i/ka*’ in modern Korean is phonologically conditioned and is not explained by a phonological rule. However,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whether this alternation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regularity and suppletion. Firstly, the phonological rule must be separate from a morphemic alternation in that it is for phonological alternation. Therefore the regularity of morphemic alternation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predictability of morphemic alternation itself. In this regard, the alternation of subjective case marker ‘*i/ka*’ in modern Korean is regular. A phonological rule guarantees a regular alternation, but a regular alternation does not require a phonological rule. Phonological condition can be resulted in either regular alternation or irregular alternation. Therefore, it does not affect the regularity of alternation critically. If it is true that the alternation of subjective case marker ‘*i/ka*’ in modern Korean is regular, this automatically indicates that the alternation of subjective case marker ‘*i/ka*’ in modern Korean is not a kind of suppletive alternation in that a suppletive alternation presupposes an irregular alternation. But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at the alternation of subjective case marker ‘*i/ka*’ in Korean is originated from suppletion. In other words, the alternation of subjective case marker ‘*i/ka*’ in modern Korean has developed from irregular into regular.

Key words: alternation, phonological condition, phonological rule, allomorph, regular alternation, irregular alternation, suppletive alternation, regularity, predictability

최형용(崔炯龍)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E-mail: chy@ewha.ac.kr

(2017년 4월 15일에 원고 받고, 2017년 5월 8일에 심사하여 2017년 5월 10일에 심기로 함)